

“2-2-2”

이것은 저와 동역자들의 올해 기도제목이며 목표입니다.

2 시간기도, 2 회 성경통독, 2 교회개척이란 목표를 두고 시작한 2013 년 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좀 더 드릴 것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우치고져 세운 목표입니다.

동역자님들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의 삶에도 더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아구아디따의 센터 봉헌식을 하나님앞에 행하고 이젠 아동들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책 걸상이 부족해서 반 수 이상은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센터에서 아동들은 마냥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기까지 특히 엑토르라는 형제의 수고가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도 센터의 마무리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 보다는 하나님안에 사는 것을 더 사모하고, 얼마 전엔 이웃에 문짝도 없는 허름한 판자집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먼 길 마다않고 찾아가 문짝도 달아주고 왔습니다.

저희와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동들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주일엔 센터에서 드러지는 예배에 기타반주도 돕고 있습니다.

엑토르 형제가 믿음에서 든든히 서 가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신학년에 들어선 아동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지역별로 찾아가서 학용품을 전달해 주고 저희 어린이 사역의 수혜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을 심방도 하면서 올 한 해의 사역들을 더욱 넓히시고져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신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디아나 라는 여학생은 임신을 했고 죠안이란 학생은 약물중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디아나는 남자의 집에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그 남자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임신초기 여러번 유산의 위기도 있었기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안은 재활센터를 가야하는데 어려움이 많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야학을 찾는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특히 10 학년을 맞은 안지와 까밀로가 경제적 이유로 휴학을 했기에 2 년 남은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설득해 다시 학교로 돌려 보냈습니다.



안지와 까밀로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까지 생활과 학업을 위해 매달 50 달러정도가 필요한데 이들을 졸업까지 잘 돌봐 줄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이발봉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치과선생님도 동참해 주셨구요.

특히 작년부터 시력이 나쁜 아동들과 부모님들의 안경을 제작해 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100 개가 넘는 안경을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안과의사로 봉사해 주신 의사선생님께서 안경테를 기증해 주셔서 저희는 렌즈만 주문했구요.

하루가 짧다고 물려드는 부모님들과 아동들을 맞으면서 의사선생님들도 짧은 점심식사 시간을 빼고 열심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보디라이프라는 스포츠센터의 협력가운데 두 주에 한 번씩 에어로빅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쑥스러움 많은 시골분들이라서인지 아직 많은 분들이 구경만 하시고 선뜻 참여를 못하시지만 저희 어린 친구들과 용감한 어머님들은 열심으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룸바라는 이 나라의 춤과 리듬을 에어로빅에 접목한 것이라서 더욱 재미있어 합니다.

올해의 첫 생일잔치는 아구아디따 어린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센터에서의 첫 생일잔치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기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콜롬비아주재 한국대사관의 추 종연 대사님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형 입체 텔레비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이 도착한 날, 호기심에 가득차서 텔레비전 박스를 힐끔거리며 눈 반짝이던 아이들에게

입체영화를 보여 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에 협력하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삶과 사고가 더욱 풍성해 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구원예의 열망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섬김을 시작한 이곳 아구아디따는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중보기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학생들이 예쁜 모습으로 성장하고 남학생들이 훌쩍 커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더불어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유혹과 유혹의 낭떠러지 사이를 걷는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어린아이 바라보듯 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늦기 전에 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온전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공간을 초월해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오늘도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2013 년 3 월 7 일 콜롬비아에서 김 혜 정 선교사 올림

중보와 찬양의 자리에 콜롬비아를 올려드립니다.

1. 아름다운 예배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아구아디따에서의 예배를 통해 지역을 묶고있는 미혹의 세력들이 파괴되어지도록
2. 청년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함에 감사드리며, 더욱 신실한 일꾼이요 예배자도 성장해 나가도록
3. 300 명의 어린이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4.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동역자님들이 계심을 감사드리며, 콜롬비아 선교를 동역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